

# 여자컬링, 4년만에 세계 2위로 급성장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결승서 스웨덴에 3-8 기권패  
리턴매치서 석패...올림픽 두번째 도전만에 은메달 쾌거



25일 오전 강원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여자 컬링 4강전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에서 저 은메달을 딴 대한민국 (김은정,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대표팀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고 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스웨덴에게 패했다. 은메달이다. 한국(스킵 김은정)은 25일 오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결승에서 스웨덴(스킵 안나 하셀보리)에 3-8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한국은 일본을 상대한 준결승과 같은 라인업으로 나섰다. 스킵 김은정과 리드 김영미, 세컨드 김선

영, 서드 김경애가 나왔다. 김초희는 후보로 벤치를 지켰다. 한국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친 스웨덴에 고전했다. 1엔드는 후공으로 시작해 1점을 얻었지만 이후 연이어 접수를 내줬다. 2엔드에서 누구도 점수를 가져가지 못한 뒤 스웨덴이 경기를 주도했다. 3엔드 한국이 선공으로 나서 경기를 순조롭게 풀어나갔지만 스웨덴의 연이은 테

이크아웃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스킵 김은정의 마지막 샷마저 빗나가면서 2점을 내줬다. 1-2로 역전 당한 후에도 흔들렸던 한국은 후공을 잡았지만 실수가 잇따르면서 스윌을 당했다. 5엔드도 마찬가지로였다. 스웨덴의 절묘한 테이크아웃 샷에 스톤을 하우스에 넣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에 더블 테이크아웃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하고 또 다시 스윌을 허용했다.

1-4까지 밀린 한국은 6엔드에서 한 점을 만회하며 2-4로 추격했다. 1엔드 이후 첫 득점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정확한 샷은 계속됐다. 한국은 7엔드 선공에서 마지막까지 점수를 펼쳤지만 스웨덴 스킵의 테이크아웃에 총 3점을 내줬다. 스코어는 2-7로 벌어졌다.

한국과 스웨덴은 8, 9엔드에서 한 점씩 주고받았다. 3-8로 승부가 기울자 한국은 기권했다.

한편 동메달은 일본이 가져갔다. 일본은 24일 3, 4위 결정전에서 영국을 물리쳤다.

예선을 8승1패 전체 1위로 통과한 한국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제압했다. 결승 무대에서 스웨덴을 만났다. 대표팀은 예선에서 스웨덴을 7-6으로 꺾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리턴매치에서는 석패하고 말았다.

여자 컬링의 2014년 소치 대회 때 올림픽 무대를 처음 밟았다. 은메달은 두 번째 도전만에 이룬 쾌거다. 소치 대회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은 3승6패로 예선 탈락했다.

여자 컬링의 은메달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모두 16개가 됐다. 쇼트트랙에서 6개(금3, 은1, 동2), 스피드스케이팅에서 7개(금, 은4, 동2), 스키투와 스노보드, 컬링에서 메달을 하나씩 더했다. 역대 올림픽을 최다 메달이다. 이전까지는 2010 밴쿠버 대회에서 따낸 14개가 최다였다.

스웨덴은 여자 컬링에서 역대 3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2006 토리노와 2010 밴쿠버에서 2연패에 성공한 뒤 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2014 소치에서는 은메달에 그쳤다.



지난 20일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 댄스 경기에 출전한 민유라-알렉산더 켈린 선수.

## ‘파란 눈 태극전사’ 대거 등장 최초 올림픽...“순혈주의 약화”

“어? 한국 국가대표가 한국인이 아니냐?”

얼마 전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종목의 프리 댄스 경기에 나선 한국 국가대표 남자 선수 알렉산더 켈린(25)을 TV로 시청하던 국민 다수가 고개를 가우뚱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배경으로 빙판 위에서 한복을 입고 연기를 펼친 켈린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민족(韓民族)’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특 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은 미국인이다. 사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춘 민유라(23)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재 미교포 출신이다.

남녀 아이스하키의 주역인 캐나다 출신 맷 달튼과 미국 출신 랜디 회수 그리핀, 모두 러시아 출신인 인티모페이 랍신·안나 프롤리나·에카테리나 에바쿠모비치는 한국 대표로 바이애슬론에 출전했다.

김마그너스는 노르웨이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크로스컨트리 대표로 실원을 달렸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 에일린 프리체는 루지 여자 싱글 부문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다양한 국적 출신인 외국인들이 역대 어느 올림픽에서보다 국가대표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

선수 뿐만이 아니다. 남녀 아이스하키 팀을 이끌었던 백지선(미국) 감독과 새러 머리(캐나

다) 감독,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네덜란드 출신 밥 데용 등 외국인 코치·감독들도 더러 있다.

30년 전 서울올림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푸른 눈’, ‘노란 머리’의 낯선 외국인이 평창 올림픽 전 대거 귀화하면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한국인’ 선수가 설 자리를 빼앗은 셈. ‘돈 주고 메달을 사는 것’ 등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에는 국가대표 144명 중 19명이 귀화 외국인 선수로 채워졌다. 심지어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25명 엔트리 중 외국인이 7명에 달한다.

불과 4년 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만 해도 귀화 외국인 선수는 화교 출신 공상정(여자 쇼트트랙)이 유일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 대표팀 수를 뽑는데 출신 국적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올림픽 위원회(USOC)는 자국 선수의 인종, 출신국적을 규정상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평창올림픽 선수단 243명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이 각각 10명씩 차지했다.

한때 우리나라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단군 신화를 숭배하고 한민족·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역사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대표

구상 또한 고유의 정체성을 당연시했다. 최근에는 파란 눈동자, 노란 머리, 검은색 피부 등 갈수록 다양한 인종·국적 출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순수 단일민족 국가의 개념은 희석되고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내재된 뿌리깊은 순혈주의를 허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경 구분이 무의미해진 글로벌 시대에 한민족이라는 관념에 얽매는 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에서 실력이 약한데 메달 획득이 취약한 종목 위주로 외국인 선수를 받아들인 평창올림픽을 놓고 순혈주의가 깨졌다고 볼 순 없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국제 결혼과 결혼 이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순혈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창올림픽에 외국인 귀화 선수들이 많이 참여한 것도 이런 큰 흐름에서 약화된 순혈주의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배우자가 백인인지 혹은 흑인인지 피부색깔에 따라 바라보는 시

## 한국 봅슬레이, 스타트·주행 모두 ‘클린’...아시아 최초 메달

최근 기량 급상승하며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마침내 메달을 따냈다. 원윤종(33·강원도청)·전정린(29·강원도청)·서영우(27·경기BS연맹)·김동현(31·강원도청)은 25일 오전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4인승에서 1~4차레이스 합계 3분16초8로 니코 발터(독일)조와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은 독일의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3분15초88)조가 가져갔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의 개척자 강광배가 이끄는 4인승팀이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래 한국 봅슬레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최초의 쾌거이기도 하다. 스키투와 루지를 포함한 한국 썰매 종목 전체로는 이번 평창 대회 남자 스키투의 윤성빈(24·강원도청)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이다.

한국선수단은 컬링 여자대표팀에 이어 폐막일에 은메달을 2개 추가했다. 종합 성적은 금메달 5개, 은

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7위다. 2인승에서 6위에 그친 원윤종과 서영우에 푸시맨 전정린, 브레이크맨 김동현이 가세한 4인승팀은 국제대회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기량이 급상승하면서 연습 주행에서도 좋은 기록을 냈고, 홈트랙의 이점을 안은 실전 무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첫 메달을 품에 안았다.

전날 1, 2차레이스에서 2위에 오른 한국은 이날 결선에서도 페이스를 잃지 않았다. 3차레이스에서 두 번째로 나선 한국은 스타트에서 4초위로 2차레이스와 같은 기록을 찍었다.

주행은 흠 잡을 구석이 없었다. 원윤종이 초반 구간부터 서서히 속력을 끌어올렸고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깔끔하게 들어왔다. 결국 48초89의 좋은 기록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 기록은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3차레이스까지 2위를 유지한 한국은 이어진 4차 레이스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순서로 모습을 드러냈다. 스타트 기록은 4초98였다. 주행에서도 큰 실수없이 경기를 이어갔지만 앞서 경기를 치른 발터조에게 근소하게 밀리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코너에서 속도를 끌어올린 한국은 발터조와 최종 성적 동타임을 이끌어내며 공동 은메달을

확보했다. 3차레이스까지 1위였던 프리드리히는 마지막까지 순위를 지키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2인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프리드리히와 토스텐 미르기스는 2관왕에 올랐다. 한편 세계랭킹 1위 요하네스 로흐(독일)조는 최종합계 3분17초11로 8위에 그쳤다.

뉴시스

## 기성용, 이탈리아 가나...AC밀란 이적설 모락모락



이탈리아 세리에A의 AC밀란이 기성용(29·스완지시티)에게 관심을 보였다. 칼치오 메르카토 등 현지 미디어는 24일(한국시간) “AC 밀란의 마시말리아노 미라벨리 단

장이 기성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기성용의 플레이 스타일에 감명을 받았다”며 AC밀란이 기성용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후 스완지와 계약이 만료된다. 올 여름에 기성용을 영입하면 이적료 없이 계약 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칼치오메르카토는 밀란에서 기성용은 투카스 비글리아의 백업으로 적절하다고 봤다. 프랭크 케시, 벤투라 등을 대신해 미드필드에서 뛰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기성용은 셀틱 생활을 마치고

2012년 스완지에 합류한 이후 항상 팀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이번 시즌에도 총 15경기에 출전해 1골 1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성용은 2015년 유벤투스의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이적료 차이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기성용(29)이 플라잉 출장 한스완지는 25일 영국 브라이튼 아렉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홈경기 브라이튼전에서 1-4로 패했다. 최근 10경기 무

패 행진을 이어온 스완지는 이날 패배로 7승6무15패(승점 27), 18위가 됐다. 브라이튼은 7승10무11패(승점 31)로 12위를 달렸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기성용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스완지는 전반 18분 브라이튼의 글랜 머리에겐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후반 24분에는 머리에겐 추가골, 후반 28분 앤서니 코노카르토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무너졌다. 후반 40분 상대의 자책골로 1점을 만회했지만 후반 종료 직전 위르겐 로카리아에게 4번째 골을 헌납했다